

Duarte Sequeira

Marius Steiger  
*Vanity*

2025.09.02 — 10.25

Hannam, Seoul 서울 (KR)  
[www.duartesequeira.com](http://www.duartesequeira.com)

**When Everyday Objects Become Cultural Signs**  
Joowon Park (Curator, Director of Supermade)

Marius Steiger (born 1999, based in London and Switzerland) does not see painting as simply a way to copy what lies before his eyes. His works move fluidly between images, objects, and the social systems that surround them, generating new layers of meaning. His practice emerges at the intersection of digital and analogue, where painting is continually questioned and reimagined.

Steiger's process always begins with an idea rather than directly copying real objects. Instead, he uses computer software to build 3D models and renderings based on mental images. At this stage, he can fully control design, lighting, perspective, and colour. With cars, for example, he may subtly adjust the curves of the body, shift the angle, or redirect the light. With apples, he sometimes invents new colours or varieties that do not exist in nature. At other times, he keeps the form unchanged but combines objects in unusual ways, creating unexpected juxtapositions.

Once the digital image is complete, Steiger transforms it into a painting. The 3D model is flattened into a two-dimensional image, its outline traced so the stretcher can be cut to the exact shape. Linen is stretched across it, several layers of gesso are applied, and the painting is built up slowly with precise, flat brushstrokes. The virtual image on the screen gradually returns to material form. Unlike the instant results of the digital world, this process requires long hours of manual labour. The contrast between digital speed and the slowness of hand-painting gives his works a distinctive tension.

His paintings appear on shaped canvases cut to the outline of the object. This shif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ting and space, as the edge between image and support disappears and the wall and air around the canvas become part of the work. In exhibitions, the paintings are arranged not as isolated pieces but as elements in dialogue, connected through the movements and gazes of viewers. Steiger describes this as an "image-based or painting-based installation," where painting functions as both a visual scene and a spatial experience.

In this context, the choice of objects plays a central role. Steiger is inspired by everyday things such as cars, chairs, apples, mirrors, and shelves. These are so familiar that we often overlook them. He brings them back into focus, painting them with hyperreal detail or combining them in strange ways. In his work, they become more than tools; they raise questions about society, culture, and the way we think. Perfect surfaces, precise arrangements, and display formats recall modernism's pursuit of order while also evoking capitalism, marketing, and mass production today.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 who argued that objects do not simply exist but are defined and interpreted within social institutions and gazes, provide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Steiger's work. Foucault's notions of power, discipline, and the classification of knowledge reveal that objects are never neutral but acquire meaning within specific systems of order. In this sense, the everyday objects that appear in Steiger's paintings are not merely subjects of representation. They function as cultural signs that reveal the values, desires, and norms shaped by social structures.

In the *Case* series, polished wood grain is carefully painted, but the book spines are grey and unreadable. Within this monotony, a piece of fruit, a cigarette, or a small keepsake interrupts the scene, hinting at traces of human presence. In the *Car* series, the subject is not a specific model but the endlessly reproduced idea of

the car circulating in advertising, design, and collective imagination. The glossy surfaces may resemble media images, but their shine is the result of hundreds of hours of brushwork.

This approach continues in the *Apple Circle* series. Each apple is placed on a uniquely shaped canvas. Some are painted with extreme realism, while others appear in colours that do not exist in reality. Arranged in a circle, the apples suggest that an apple is no longer just a fruit. It is at once an emoji, a logo, a painting, and a stock image. In other words, a single image reveals the layered complexity of today's visual culture, where symbols, signs, commodities, and artworks overlap, are consumed, and circulate endlessly. At the same time, the apples recall the history of still life, unsettling our perception much like Cézanne once disrupted the act of looking. Steiger's apples demonstrate how perception is formed through ceaseless reproduction and mediation, yet he insists on using linen and maintaining a consistent stretcher depth. This persistence underscores that even the most experimental gestures remain in dialogue with, rather than in rupture from, the tradition of painting.

In this way, Steiger keeps the language of painting alive while making it unfamiliar. He introduces small breaks into the illusion. From afar, his works look real, but up close the flatness of the surface and the cut edges of the canvas become clear. The illusion collapses, and the viewer realises it is paint on fabric. Steiger welcomes this delicate overlap of illusion and reality. Rather than resolving the dissonance, he uses it to make images feel like objects and objects feel like images. His paintings, which appear perfectly seamless, ultimately reveal the marks of their making and prompt us to reflect on how we see. The machine-like perfection, achieved only through painstaking manual labour, mirrors the way we experience images today.

Steiger's works do not offer final answers. Instead, they make the familiar strange, reminding us that our ways of seeing are shaped by visual conventions. His shaped canvases link objects to walls, bodies, and movement, transforming the spaces between them into part of the work. As viewers pass through, they confront not only the images but also the very process of their making and circulation. In an age when digital images appear and vanish in an instant, Steiger insists on the slowness of paint, embedding within each work the tension between machine-like perfection and the labour of the hand. Through this fragile balance, slow, precise, and slightly strange, he rewrites painting for the present, proving that it can still show us how we see, and compel us to look again.

일상의 사물이 문화적 기호가 될 때  
박주원 (큐레이터, 디렉터 Supermade)

마리우스 슈타이거(1999년생, 런던·스위스 기반)는 회화를 단순히 눈앞의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회화는 이미지와 사물,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제도와 규범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그의 작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교차하는 경계에서 태어나며, 이 교차의 순간에서 회화의 가능성을 다시 묻는다.

슈타이거의 작품은 언제나 발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관찰해 옮기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른 구상을 바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열어 3D 모델과 렌더링을 구축한다. 이 디지털 단계에서 그는 디자인, 조명, 원근, 색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다룰 때는 차체의 곡선을 미세하게 손보고 시점을 바꾸며, 빛의 방향을 조정한다. 사과를 그릴 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색이나 품종을 발명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두되,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들을 한 화면에 조합해 낯선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구성된 디지털 렌더링은 다시 물질적 회화로 옮겨진다. 그는 입체로 설계된 이미지를 평면 이미지로 변환한 뒤, 그 외곽선을 따서 캔버스의 틀을 정확히 잘라낸다. 그 위에 리넨을 씌우고 여러 겹의 젯소로 바탕을 다진 후, 평평하고 정밀한 붓질로 이미지를 한 겹씩 쌓아 올린다. 화면 속 가상 이미지가 천천히 물질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디지털 세계의 즉각적인 결과와 달리, 한 번의 붓질마다 시간이 쌓이는 느린 노동을 요구한다. 디지털에서는 이미지가 즉시 만들어 지지만, 손으로 그리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바로 이 빠름과 느림의 차이에서 그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긴장이 생겨난다.

슈타이거의 작품은 형태 자체가 잘려나간 변형 캔버스로 제시된다. 이는 또한 회화와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화면과 바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작품 주변의 벽과 공기까지 구도에 포함된다. 전시장 안에서 그의 작업들은 고립된 오브제가 아니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요소처럼 배치되며, 관람자의 동선과 시선이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는 전시를 “이미지 기반 혹은 회화 기반 설치”라고 부르며, 작품을 시각적 장면이자 공간적 체험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하는 ‘대상’이다. 슈타이거의 영감은 주로 자동차, 의자, 사과, 거울, 선반처럼 일상적인 사물에서 비롯된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쉽게 지나쳐 버리는 일상적 사물들을 다시 소환하여, 실제보다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낯선 조합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이미지 속 사물들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지나치게 완벽한 표면, 정확한 배열로 대표되는 전시장 속 디스플레이 형식은 근대주의가 꿈꿨던 질서와 명료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마케팅, 대량생산 시스템을 드러낸다.

사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시선 속에서 규정되고 해석된다고 본 미셸 푸코의 관점은, 슈타이거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푸코가 말한 권력과 규율, 그리고 지식을 분류하는 방식은 사물이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질서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타이거의 회화에 등장하는 일상적 사물들은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가 부여한 가치와 욕망, 규범의 흔적을 드러내는 문화적 기호로 작동한다. Case 연작에서는 반짝이는 나무결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지만, 책등은 무채색 덩어리로 남아 읽을 수 없다. 그 단조로운 질서 속에 과일이나 담배, 작은 기념품이 불쑥 등장하며 인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특히 Car 연작은 특정 모델의 초상이 아니라 광고와 디자인, 대중의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자동차라는 관념’을 보여준다. 매끈한 표면은 대량 이미지의 광택을 닮았지만, 그 빛은 수백 시간의 붓질 끝에 얻어진 것이다.

이 접근은 Apple Circle 연작에서도 이어진다. 각각의 사과는 고유한 형태의 캔버스 위에 놓인다. 어떤 사과는 극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지지만, 어떤 사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 나타난다. 원형으로 배치된 사과들은 이제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모지이

자 로고이며, 회화이자 스톡사진이다. 즉 하나의 이미지가 상징, 기호, 상품, 예술로 겹겹이 소비되고 유통되는 오늘날 시각 문화의 복합적 층위를 드러낸다. 동시에 그것들은 정물화의 역사를 환기하며, 세잔이 한때 '보기'의 방식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각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든다. 슈타이거의 사과는 끝없는 재생산과 매개 속에서 지각이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리넨과 일정한 캔버스의 깊이를 고집한다. 이 실험적 시도가 회화의 전통과 단절되지 않고 맞닿아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슈타이거의 작업은 전통적 회화의 문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낯설게 전환한다. 그는 화면 속에 의도적으로 미묘한 균열을 심어둔다. 그의 작품은 눈속임 기법을 통해 멀리서 보면 실제 사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평평한 표면과 캔버스 가장자리의 단절이 드러난다. 이 순간 환영은 깨지고, 관람자는 작품이 사실 붓과 물감으로 만들어진 회화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환영과 현실의 뒤섞임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호한 지점을 활용해 이미지를 다시 물건처럼 체감하게 하고, 물건을 다시 이미지로 읽게 만드는 데 회화를 사용한다. 그렇게 그의 작업은 완벽하게 봉합된 듯 보이는 이미지가 결국 제작의 과정과 흔적을 드러내며, 우리가 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 겉으로는 기계가 만든 듯 정교한 표면이 사실은 손의 반복적 노동으로 쌓아 올려진 결과라는 역설 속에서, 오늘날 시각 체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의 회화는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익숙한 기호를 낯설게 뒤집으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미지의 규범 속에서 '보는 법'을 훈련받아왔는지를 드러낸다. 변형된 캔버스는 사물과 전시장, 벽과 사람, 시선과 움직임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내고, 그 사이의 간격마저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관람자는 그 환경을 지나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다가 다시 물질로 환원되는 긴 여정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디지털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번쩍었다 사라지는 시대에, 슈타이거의 회화는 수백 시간의 손작업 속에서만 태어나는 고유한 긴장을 담아낸다. 느리게, 치밀하게, 그러나 기묘하게 낯선 방식으로 그는 회화를 다시 오늘의 언어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 회화는 여전히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낯설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장치라는 사실을.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Switzerland

Marius Steiger is a Swiss artist who holds a Master's degree in Painting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He has been awarded a scholarship from the Patronage Fund for Young Swiss Artists of the Kunsthalle Basel. His work is part of public collections such as the Julius Baer Art Collection, Zurich; Collection of the New Art Dealers Alliance, New York City; the Art Collection of the City of Zurich; the Art Collection of the Canton of Bern and the Swiss National Library.

His recent exhibitions include *Monsieur Hulot*, Blue Velvet, Zurich, Switzerland (2025); *Clear History*, Perrotin, Paris, France (2025); *Brick Breath Horizon*, Lisson X Zian, Lisson Gallery, Shanghai, China (2025); *Maison Clearing*, Clearing NY LA (Off-Site), Basel, Switzerland (2025); *Day*, Galleri Opdahl, Stavanger, Norway (2024); *Sun shines*, *Money falls*, Blue Velvet, Zurich, Switzerland (2023); *Lust for Life*, Incubator, London, United Kingdom (2022).

Marius Steiger's upcoming exhibitions include his first institutional solo show at the Kunstraum Riehen in Basel, Switzerland (September 2025) and a solo show at Duarte Sequeira in Seoul, Korea (September 2025).

Education

2022–2023      MA Painting,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2015–2019      Graphic Design, Schule für Gestaltung SfGBB, Biel, Switzerland





Marius Steiger  
*Apple Circl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38 × 38 × 4.5 cm









Marius Steiger  
*Apple Circl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38 × 38 × 4.5 cm







Marius Steiger  
*Apple Circl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35 × 35 × 4.5 cm





Marius Steiger  
*Car (Teenag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190 × 300 × 4.5 cm







**Marius Steiger**  
*Chair and Apple (Balls),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120 × 120 × 4.5 cm









**Marius Steiger**  
*Three Chairs (Spin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180 × 155 × 4.5 cm









Marius Steiger  
*Two Chairs (Conversation)*,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210 × 102 × 4.5 cm







**Marius Steiger**  
*Two Chairs (Exchange)*,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182 × 110 × 4.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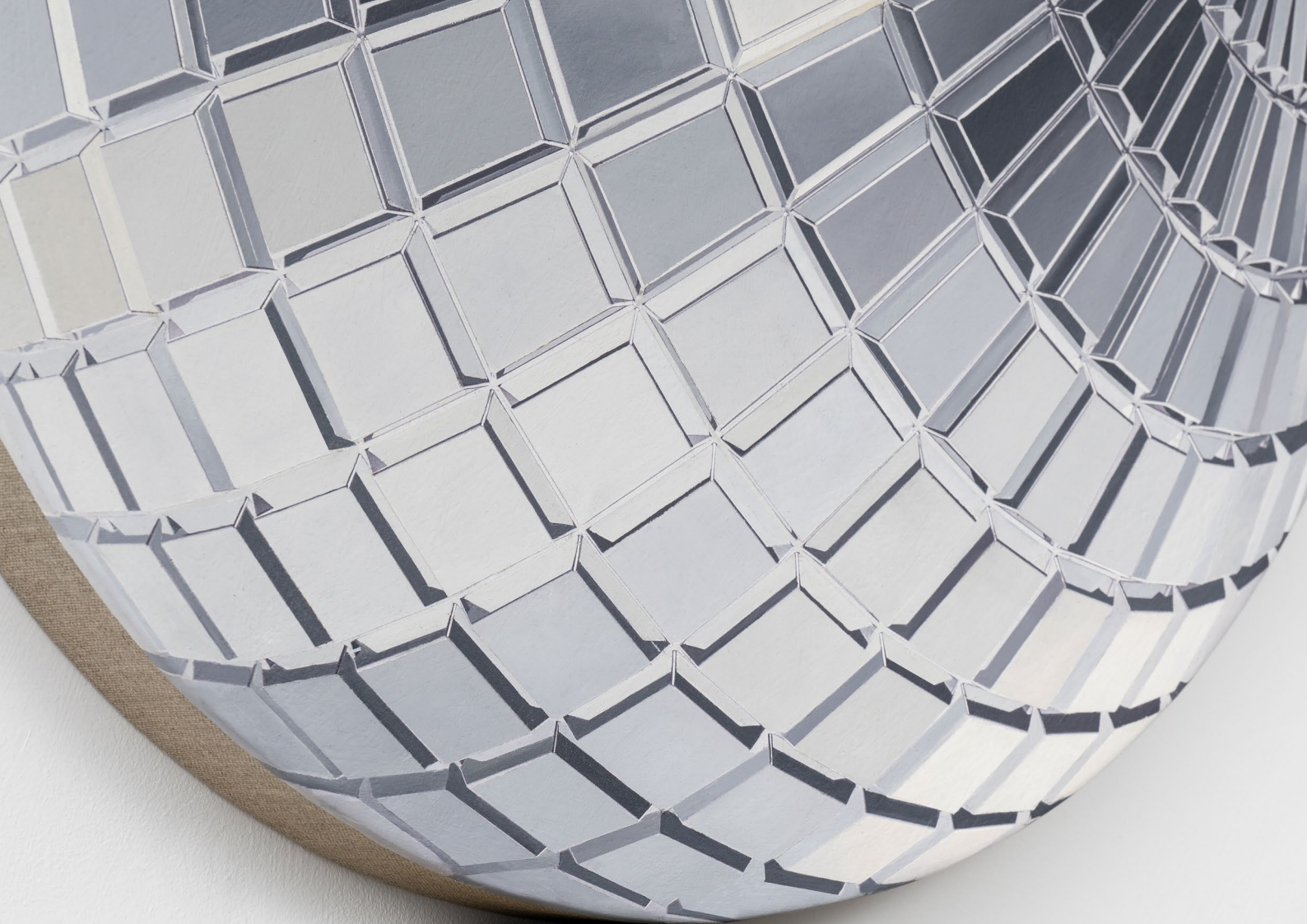




**Marius Steiger**  
*Two Chairs and Ball (Totem), 2025*

Oil and acrylic on linen  
210 × 102 × 4.5 cm







Forthcoming	<i>Hermitage</i> , Kunstraum Riehen, Basel, Switzerland (Institutional) (solo)
2025	<i>Vanity</i> , Duarte Sequeira, Seoul, Korea (solo) <i>Monsieur Hulot</i> , Blue Velvet, Zurich, Switzerland (solo) <i>Brick Breath Horizon</i> , Lisson X Zian, Lisson Gallery, Shanghai, China (group) <i>Clear History</i> , Perrotin, Paris, France (group) <i>Maison Clearing</i> , Clearing NY LA (Off-Site), Basel, Switzerland (group) <i>Bellevue</i> , Rothschild & Co, Zurich, Switzerland (group)
2024	<i>Day</i> , Galleri Opdahl, Stavanger, Norway (solo) <i>Cantonale</i> , Kunsthau Interlaken, Interlaken, Switzerland (group) <i>1974/2024</i> , Villa Benkemoun, Arles, France (group)
2023	<i>Sun shines</i> , Money falls, Blue Velvet, Zurich, Switzerland (solo) <i>May your dream come</i> , Kunsthalle Palazzo, Liestal, Basel, Switzerland (group) <i>Banana branches</i> , Lamb Gallery, London, UK (group)
2022	<i>Lust for Life</i> , Incubator, London, UK (solo) <i>Cantonale</i> , Stadtgalerie, Bern, Switzerland (group) <i>Ohne Titel</i> , Museum zu Allerheiligen, Schaffhausen, Switzerland (group) <i>Deep Moments</i> , Kunstraum Riehen, Basel, Switzerland (group) <i>Impression</i> , Kunsthau Grenchen, Grenchen, Switzerland (group)
2021	<i>Four Seasons</i> , Mattenstrasse 81, Biel, Switzerland (solo) <i>Cantonale</i> , Kunsthau Pasquart, Biel, Switzerland (group) <i>Cantonale</i> , Musée des Arts, Moutier, Switzerland (group) <i>Down the hills</i> , Blue Velvet, Zurich, Switzerland (group)



Duarte Sequeira

**Marius Steiger (b. 1999)**  
Selected Publications & Press

- |      |  |
|------|--|
| 2025 | Samuel Haitz<br><i>Review: Marius Steiger Monsieur Hulot Blue Velvet Zurich</i><br>Flash Art Magazine, 4th June 2025<br>Article in online magazine           |
| 2024 | Federica Schneck<br><i>Marius Steiger: Fiori contemporanei tra natura e artificio</i><br>Finestre sull' Arte, March 2024<br>Article in print magazine, Italy |
| 2023 | Rémi Guezodje<br><i>Marius Steiger, un inventaire psychique</i><br>The Steidz, 22nd May 2023<br>Article in online magazine                                   |

Duarte Sequeira

Marius Steiger (b. 1999)  
Fairs

Forthcoming	Frieze Seoul with Duarte Sequeira, Seoul, Korea (group)
2025	Basel Social Club with Blue Velvet, Basel, Switzerland (group) ArtOno with Duarte Sequeira, Seoul, Korea (group) Art Genève with Blue Velvet, Geneva, Switzerland (group)
2024	NADA with Blue Velvet, Miami, USA (solo) Enter Art Fair with Galleri Opdahl, Copenhagen, Denmark (group) Market Art Fair with Galleri Golsa, Stockholm, Sweden (group)
2023	Artissima with Blue Velvet, Turin, Italy (solo)



## Duarte Sequeira

## Current Exhibitions

Julian Opie  
14.06 — 13.09.2025  
HQ, Braga (PT)

Imi Knoebel  
*Etcetera*  
02.09 — 25.10.2025  
Hannam, Seoul 서울 (KR)  
(in collaboration w/ Jahn und Jahn)

## Upcoming Events

Frieze Seoul  
Booth A03  
03.09 — 06.09.2025  
COEX, Seoul 서울 (KR)